

국학과 문화대국: 국학교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박영순(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 시작하며

중국의 인문위기는 근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 문화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인문(문화)위기는 근대 서방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중서문화의 충돌, 오사시기 사상문화로부터 시작한 현대화 과정,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고도 집권의 정치체제 및 단일화된 이데올로기,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가져온 배금주의, 현재 문화대국으로의 꿈 등 중국의 사회변동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였다. 그럴 때마다 항상 비판·논의 중심에 전통문화와 국학이 있어왔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2008년 올림픽 개최 이후 내부적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문화소프트파워의 구축을 통해 ‘문화중국’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매체, 교육, 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유관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외국문화가 유입되면서 특히 90년대 초부터 국학을 회고·반성하고 국학교육을 외치면서 국학연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국학열의 흥기는 『인민일보』 1993년 8월 16일자에 「國學，在燕園又悄然興起」와 18일자에 「久違了，國學」을 기점으로 다시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정치, 군사력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벗어나 이젠 소프트파워로서의 문화대국을 꿈꾸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경제열’ ‘한학열’ ‘한어열’, ‘국학열’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문화전승의 중요 기지로서 문화교육의 기능을 발휘하는 대학의 국학원도 이러한 배경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근대의 ‘국학’은 서양학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여 중-서양 문화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수차례의 부침을 겪은 후, 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굴기’,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국학’ 연구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현대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탐구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 내의 국학연구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운영적인 면에서 연구형, 교육형, 지식보급형의 특징을 비교적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는 北京大學國學院, 中國人民大學國學院(2005년), 首都師範大學國學傳播中心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90년대 국학열을 이어 2000년 전후로 설립된 대학의 국학관련 교육기관과 유관 활동사례를 통해 중국의 전통인문교육의 특징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전통문화의 현재적 전환, 문화대국의 길, 국학교육 등이 과연 현 중국의 문화중흥을 가능케 할 수 있을지, 나아가 전통국학이 중국 사회와 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인문학 위기와 국학연구 기관의 탄생 배경

1-1. 국학의 개념에 대한 이해

근대의 ‘국학’은 서양학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여 중-서양 문화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수차례의 부침을 겪은 후, 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굴기’,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국학’ 연구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현대화

로 갈 것인가에 대한 탐구이다.

20,30년대 근대 ‘국학’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국학이란 명칭은 19세기 서학이 들어오면서 일부 사대부들은 국수가 서구의 비바람에 쓰러질까봐 걱정하여 이를 굳게 보존하고자 하였으니, 이를 국학이라 한다.”(曹聚仁); “국외에서 들어온 학문과의 차별성에서 말하자면, 대개 중국고유의 학문범위 안에 속하는 것은 모두 국학이다.”(胡朴安); “신학(新學)의 상대적인 의미의 구학(舊學)을 가리키며, 서학(西學)의 상대적인 의미의 중학(中學)을 말한다. 이를테면 중국정통학술을 말한다.”(桑兵) 등 분분하다.¹⁾ 대체적으로 중국 전통문화로서의 ‘국학’은 서양 문화의 대응적 산물로 보았다. 그러나 80,90년대 국학열의 배경에서 바라본 국학에 대한 견해는 조금 다르다.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화민족의 전통학술문화로 본다. 장리원(張立文)은 국학은 “중화민족의 학술문화와 시대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것으로 중화민족의 학술 문화의 집합이며, 중화민족의 생활방식이고 행위와 감정, 생명과 지혜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의 마음이고 중국의 뿌리이다. 뿌리가 깊으면 나라가 흥하고 뿌리가 강하면 나라가 강하다. 그래서 중화 민족의 명맥과 정신이 국학에 달려 있다.”²⁾라고 하면서 중화민족의 생활과 지혜를 담고 있는 중국전통학술문화로 보고 있다.

둘째, 유학, 봉건사상과 동일시한다. 수우(舒蕪)는 “소위 국학이란 사실 청나라 말기에서부터 5·4에 이르기까지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이 제시한 서양의 ‘과학’과 ‘민주’의 문화를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구실에 불과한 편협적이고 보수적이며 막연하고 모호하며 극히 완고한 구호이다.” “소위 국학이란 전통문화의 개념이 아니다. 국학이 무엇인가? 유가의 내용뿐이고 봉건적 가치관에 불과하다.”³⁾라고 말하면서 ‘국학’을 ‘유학’ 그리고 봉건사상과 동일시하였다.

셋째, 국학의 핵심은 유학이며 현대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저우꾸이뎨(周桂鈿)은 “국학의 핵심은 유학이며 국학의 정신은 주로 유학이다. 유학의 인의지도(仁義之道), 화이부동(和而不同), 인민애물(仁民愛物), 위정이덕(爲政以德) 사상의 정수는 세계평화촉진과 조화로운 사회 구현 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⁴⁾ ‘국학’의 주류를 유학의 정신으로 귀결하면서 국학은 단순히 구학이나 과거학문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 건설과 인문 도덕에 필요한 인문 정신이라고 보았다.⁵⁾ 이는 90년대에 ‘국학열기’가 나타난 이후 ‘중국전통문화의 부활’의 구호 속에서 전통으로의 회귀와 유학부흥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직접적은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21세기 들어 적지 않은 유교 근본주의자들이 국학이 곧 유학, 유교라고 생각하며 중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유학 사상으로 귀결시키면서 ‘국학’의 깃발로 걸고 관방이데올로기의 위치로 제시하였다.

넷째, 세계문화 속에서 중국문화의 발양으로 재탄생한다. 탕이제(湯一介)는 “중국 전통 문화를 진정으로 전 세계 문화 발전의 추세에 놓고 관찰하여 중국문화의 진정한 정신을 현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접목시켜야하며, 국학연구 및 응용은 개혁과 혁신 시대의 새로운 시대적 정신으로 접근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의 빛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하였다.”⁶⁾ 나아가 대중의 일상 속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푸런(王富仁)은 2005년

1) 盧毅, 「“国学”, “国故”, “国故学”-试析三词在清末明初的语言变迁和相互关联」, 《教育学研究》, 2005년 2기; 陈以爱, 『中国现代学术研究機構の兴起-以北大研究所国学門を中心』, 江西教育出版社, 2002년; 桑兵, 『晚清民国的国学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1년 등이 있다.

2) 張立文, 「國學與時代」, 『中國社會科學研究生院報』, 1995, 제5기.

3) 舒蕪, 「“國學”質疑」, 『文匯報』, 2006, 6. 28.

4) 周桂鈿, 「國學精神與當代社會」, 『北京行政學院學報』, 2007, 제3기.

5) 趙敦華, 「試論國學的幾個問題」, 『新視野』, 2006, 제3기.

초 「“新国学”論綱」에서 국학을 중국의 사회발전의 새로운 사상적 자원으로 간주하였다. 국학은 단순히 폐쇄적인 한 기간의 역사가 아니라 개방적인 사상 체계이며 그 ‘새로운’ 것이란 순수 학술적 의미가 아니라 대중들의 삶 속으로 전환하여 들어온 것이다.”⁷⁾라고 하였다.

이처럼 현대 중국 사회에서 국학의 의미는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첫 번째 해석은 가치 판단의 해석이 아니라 학술적인 해석이며 현재 국학연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유학의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이며, 셋째, 넷째 해석은 특히 중국 내부 사회와 중국문화대국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 네 가지 해석은 동시에 존재하면서 국학원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외적으로 문화소프트파워를 통해 보여진다.

1-2. 국학의 부침

중국 전통학술문화로서의 국학은 부단한 부침을 겪어왔다. 때로는 전통문화의 ‘정화’로서 ‘계승’의 길을, 때로는 ‘재정리’의 대상으로서 ‘회생’의 길을, 때로는 ‘청산’의 대상으로 ‘몰락’의 길을 각각 걸어왔다. 아편전쟁 이후 국학은 사회의식 형태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다가 5.4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차 고개를 들게 된다. 당시 비록 국학은 침체를 향하고 있었지만 오·사 시기 많은 애국인사들이 국학에 대한 반성을 함으로써 국학은 황금시기를 맞이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연징燕京대학 등은 국학연구소, 국학연구원 및 국학과를 개설하여 국학교육과 연구를 진행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국학교육은 굴곡의 좌절을 맞이한다. 건국 후 전국 각 대학은 원계(院係)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전통의 학술분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공학과를 중시하고 인문학과를 간과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47년 공과 학생 수는 학생 총수의 17.8%였다가 1953년에는 37%로 상승하였다. 반면 문과, 재경, 정법류는 46%에서 9.6%로 떨어졌다. 당시 소련 교육사상의 영향과 ‘후금박고(厚今薄古)’ 사상이 지배하여 국학은 체계적인 연구와 중국전통학술을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그에 상하는 지위를 얻지 못했다.⁸⁾ 그 후 문혁시기는 ‘破四舊’(반대 구교육, 구문예, 구도덕, 구전통)를 내세워 국학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논의에 오르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외국문화가 유입되면서 특히 90년대 초부터 국학을 회고·반성하고 국학교육을 외치면서 국학연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국학열의 흥기는 『인민일보』 1993년 8월 16일자에 「國學，在燕園又悄然興起」와 18일자에 「久違了，國學」을 기점으로 다시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정치, 군사력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벗어나 이젠 소프트웨어로서의 문화대국을 꿈꾸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경제열’ ‘한학열’ ‘한어열’, ‘국학열’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문화전승의 중요 기지로서 문화교육의 기능을 발휘하는 대학의 국학원도 이러한 배경 위에서 탄생한 것이다.

1-3. 국학기관의 설립

중국에서 국학연구기구는 1922년 베이징대학 연구소 국학문이 시작을 알렸다. 1925년 淸華大學 국학연구소(1925-1929)는 당시 유명한 ‘四大導師[양계초, 王國維, 陳寅恪, 趙元任]’를 초빙하여 국학교육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1926년 하문대학 국학연구원(1926-1927)은 화교 陳嘉庚

6) 湯一介, 「中國古今之爭與中國文化的現代發展」, 『江淮論壇』, 1994, 제6기.

7) 王富仁, 「“新國學”論綱」, 『社會科學戰線』, 2005, 제3기.

8) 박영순, 『1920년대 국학연구와 학술관념의 변화-북경대학연구소 國學門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2010, 63호.

의 후원으로 설립된 후 노신, 林語堂 등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운영해갔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교육정책의 변화 및 경비문제 등으로 인해 1927년 이후 하나둘씩 폐교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대에 세워진 대표적인 대학국학교육기구는 베이징대학 국학연구원(2000년)과 우한武漢대학 국학실험반(2001년), 중국인민대학 국학원(2005년) 등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4년 9월 제16회 4중 전회에서 ‘조화로운 사회건설’이란 사명을 3대문명과 함께 열거함으로써 전통문화계승을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중국의 전통문화의 개념에서 비롯된 ‘조화로운 사회’는 중국이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었다. 당시 샤오강(小康) 사회건설의 목표는 경제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문화개념이기도 했다.⁹⁾ 중국 정부가 치국의 이념을 통해 중화전통문화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전통문화의 정수인 국학은 중화문화의 가치와 민족의 주체의를 함양하는 근본이자 민족정신의 명맥을 유지하는 원천이다. 당의 16대 보고에서는 “민족정신은 한 민족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지주이다. 중화민족은 5000여년의 발전 과정에서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한 단합과 통일, 자강불식의 위대한 민족정신을 키워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21세기 이후 사람들은 이념과 행동 면에서 국학을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학열기’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80,90년대의 국학열기와 전통문화 계승은 20, 30년대와는 다르다. 20,30년대에 일어난 ‘국학열기’는 중화민족이 민족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나타난 자기 보호적 행위였다면, 80,90년대 이후 일어난 ‘국학열’은 중화민족이 세계 각 민족 사이에서 우뚝 서는 과정에서의 자발적인 문화적 인식과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장다이넨(張岱年) “한 민족이 세계 민족들 속에서 자립하려면 반드시 민족적 자신감과 자존심이 있어야 하며 민족의 자신감과 자존심은 정신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즉 민족의 우수한 전통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¹⁰⁾ 바로 이러한 21세기 ‘국학열기’의 영향으로 각 대학에서 국학원을 세우게 되었다.

2. 현대 국학연구기관의 사례

현대 국학연구기관은 1992년 1월 베이징대학에서 중화전통문화연구중심을 설립한 후, 2000년 베이징대학 국학원으로 개명하였다. 이어 2005년 10월 16일 중국인민대학은 국학원을 설립하였다. 2006년 12월 22일 샤먼(廈門)대학에서 국학원을 설립하였고, 2007년 10월 10일 수도사범대학에서 국학전파중심을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국학연구원’ 사이트에 따르면 성급 국학원은 총26개가 있다. 또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 내 국학관련 교육, 연구소는 약26개 정도이며, 기타 각 지역에 소재한 국학관련기관은 33개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 국학관련 기관이 모두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국학 관련 교육, 연구기관이다.¹¹⁾

<표1> 국학 관련 교육, 연구기관

성급(약26개) 中国国 学研 究院 网站	北京国学研究院, 上海国学研究院, 天津国学研究院, 重庆国学研究院, 广东国学研究院, 湖北国学研究院, 陕西国学研究院, 云南国学研究院, 四川国学研究院, 甘肃国学研究院, 辽宁国学研究院, 福建国学研究院, 安徽国学研究院, 江西国学研究院, 河北国学
-----------------------------------	--

9)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샤오강’이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시경』에 “民亦勞止，訖可小康.”란 말이 있고, 공자는 “以天下爲家，政教修明，人民康樂，故謂之小康.”라고 하였다.

10) 張岱年, 「如何研究國學」, 『文史哲』, 1994, 제3기.

11) 이 외에도 국학원, 국학연구원이란 명칭을 쓰지 않은 국학관련 기구도 있다.

	研究院, 河南国学研究院, 广西国学研究院, 黑龙江国学研究院, 湖南国学研究院, 吉林国学研究院, 山东国学研究院, 山西国学研究院, 江苏国学研究院, 安徽国学研究院, 福建国学研究院, 深圳国学研究院
대학(약26개)	北京大学国学研究院, 中国人民大学国学研究院, 清华大学国学研究院, 厦门大学国学研究院, 首都师范大学国学院, 华中科技大学国学研究院, 山西大学国学研究院, 武汉大学国学院, 西北大学中国思想文化研究所, 深圳大学国学研究所, 南京大学国学讲堂, 齐鲁大学国学研究所, 湖北大学国学研究所, 南昌大学国学研究院, 山东国学研究院, 浙江复兴国学研究院, 新华大学国学研究院, 常州大学国学研究院, 陕西师范大学国学研究院, 曲阜师范大学国学院, 中医药大学国学院, 三智道商国学院, 杭州师范大学国学院, 广州城市职业学院国学院, 北京经济管理函授学院国学院, 陕西服装工程学院季美林国学院
기타(약33개)	无锡至德国学研究院, 重庆市企业策划协会国学策划研究院, 中华字道五库源国学研究院, 重庆弘道国学研究院, 重庆华夏国学研究院, 三智道商国学院, 先锋国学研究院, 北京尚善堂国学研究院, 广东国学研究基地, 海峡两岸国学研究院, 中國國學院, 中華国学研究院, 广东省九龙树国学研究院, 乾元国学研究院, 乾易国学研究院, 白鹿洞书院国学研究院, 中国汉医国学研究院, 太极国学研究院, 南京灵雨国学研究院, 河南省先锋国学研究院, 北京华海科易国学研究院, 周新乾国学研究院, 岳麓书院国学研究院, 弘德国学研究院, 华夏国学研究院, 华真十方书院, 中国文化书院, 连山易国学研究院, 中国书画国学研究院, 香港国学研究院, 中国管理研究院国学研究所, 广东华文国学研究院, 河南省国学文化研究院

출처: 中國國學研究院/ 저자 작성

이 글에서는 대학 내의 국학연구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운영적인 면에서 연구형, 교육형, 지식보급형의 특징을 비교적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는 北京大學國學院, 中國人民大學國學院, 首都師範大學國學傳播中心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¹²⁾

2-1. 베이징대학 국학원

1992년 1월 6일 먼저 베이징대학 ‘중국전통문화연구중심’이 설립 된 후, 2000년 1월 5일 베이징대학 국학원으로 개명하였다. 중문, 역사, 철학, 고고학 4개 학부로 구성된 종합적인 학술 연구기관이다. 국학 연구와 국학 지식보급 및 국학 전문 인재육성에서 기여하고 있다. 2002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박사연구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수학기간은 3-4년이다. 田餘慶, 嚴文明, 樓宇烈, 裘錫圭, 袁行霈, 陳來 등의 지도교수가 있다. 문·사·철 통합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여 전통문화에 관한 원서를 강의하며(『論語』, 『도연명집』, 『중용』 등) ‘中國文化專題研討’과목은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12) 연구형, 교육형, 지식보급형은 비교적 차별적인 특징을 살린 대략적인 분류이다. 이외에도 우한武漢대학 국학실험반은 2001년에 창립했으며 현재 본과반과 석사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저우蘭州대학 敦煌學연구소는 1979년에 건립됐으며 1983년에 둔황학 석사학위 수여기관, 1998년에 둔황학 박사학위 수여기관이 되었다. 광저우廣州시직업학원국학연구소는 2006년 9월에 설립하여 국학원과 국학실험반등을 운영하면서 국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전深圳대학 국학연구소는 1984년 9월에 설립하였으며, 학술간행물 『중국문화와 중국철학』은 국내외 학술계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산둥山東대학 易學與中國古代哲學研究中心은 2000년에 설립하여 주로 주역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난징대학 중국 국학원은 2003년 11월에 설립한 후 9개의 연구소 및 2개의 연구중심을 설립하였다. 안후이安徽대학 중국전통문화연구원은 2006년 1월에 창립하여 산하에 한어언문자연구소, 휘학徽學연구중심, 중국철학과안후이사상가연구중심, 고적정리연구소 등을 두고 주로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岳麓서원국학연구기지는 후난湖南대학에서 2005년 7월에 창립했으며 중국에서 최초로 고대서원에 의지해서 창립한 현대국학연구기지의 대학이다.

「北京大學中國傳統文化研究中心章程草案」에서 베이징대학국학원의 목적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과 학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전통문화에 관한 학제 간 통합연구와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주제별 연구, 중국고전명저 및 현대 연구저작의 외국어 번역 등을 주요 연구방향으로 한다. 베이징대학국학원의 초기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베이징대학국학원의 주요 활동

학술지	『국학연구』, 『국학季刊』
학술성과	『중화문명사』(‘985’계획의 중점프로젝트)
국학지식보급: 정부, 매체와 연계	1992년 『중화문화강좌』(100집,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지원), 『중국역사문화 지식총서』(50종)와 『중화문명대시야大視野』(8권)출판/1993년 『중국전통문화시리즈강좌』TV프로그램(CCTV와 합작)/1994년 『중화문명의 빛』(150집, CCTV와 합작)/『중화문명의 빛』(아동판, 江西21세기출판사와 합작 출판)
국제학술회의	한학연구국제회의, 국제한학번역회의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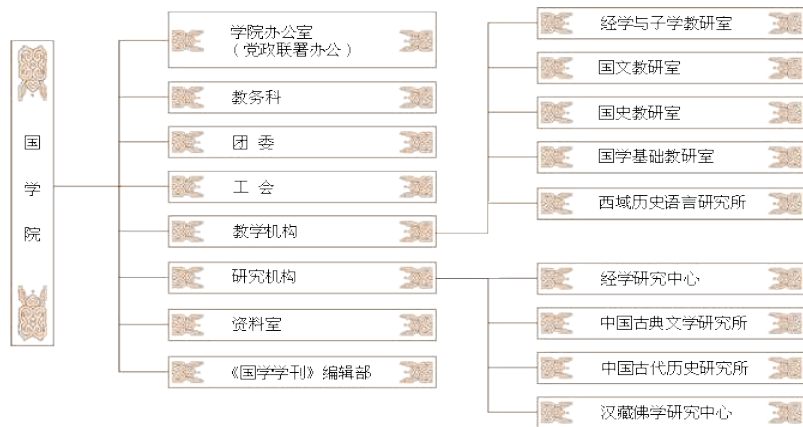
이 가운데 특히 ‘중화문화강좌’(TV시리즈)는 1992년 9월 위안싱페이(袁行霈, 소장)와 판자오밍(潘兆明)이 고문을 맡고 스쉬둥(施旭東, 미국)이 총 기획을 맡아서 제작하였다. 100개 주제를 철학·종교·문학·언어·역사·고고학·천문학·지리학·과학기술·중외문화교류 및 중외문화비교 등의 영역에서 통합한 제작하였다. 제작지원을 위해 1992년 9월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 판공실에서 15만 위안을 출자했다. 『중화문화강좌』 TV프로그램 시리즈의 출판과 방송의 취지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시키고 중외문화교류를 촉진시켜 세계인들이 중화문화에 대해 보다 폭 넓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중국전통문화시리즈강좌』의 취지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자신감, 애국주의 정신을 높이는 것이었다. 나아가 TV방송 수단을 활용하여 일반 시청자,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전통문화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발전시키며 세계에 중화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다. 1995년 『중화문명의 빛』이 TV매체를 통해 보급된 후 江西21세기출판사와 합작하여 삽화가 있는 아동판 『중화문명의 빛』을 출판하여 국학계몽교육에도 기여하였다.

2-2. 중국인민대학 국학원

2005년 5월 중국인민대학 국학원이 설립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국학원 설립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정부는 국학원 설립을 승인하고 본과생 모집도 승인했다. 중국인민대학 국학원에서 당의 전통문화 전승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인민대학이 ‘第二黨校’라는 명칭이 붙어있으며 집권당을 위해 우수한 이론적 인재를 육성하는 기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인민대학 국학원은 ‘문화의 명맥을 잇고 인재를 배출하며 문명을 전승하고 국학을 선양하며 현재에 입각하여 미래를 향한다.’를 교육과 학문의 취지로 삼고 있다. 국학원 설립 이후 985공정, 211공정 3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조직편제와 교육>

<그림1> 인민대학국학원 조직도



출처: 인민대학국학원

중국인민대학 국학원은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 교육연구기관으로 특히 ‘서역언어와 역사연구소’, 간백(簡帛)연구중심, 고문자연구소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교수진은 학술고문과 전문가 위원, 겸직교수, 특별 초빙교수 및 재직교수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민대학 국학원은 6년제의 본과석사연합 방식을 실행하며 2006년에 박사연구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총 이수 학점은 183점이다. 주요 과목은 『좌전』 연구, 『시경』 연구, 『논어』 연구, 문자음운훈고, 판본목록교감, 『주역』 연구, 『노자』 연구, 『장자』 연구, 『맹자』 연구, 『초사(楚辭)』 연구, 『사기』 연구, 『한서』 연구 등이다.

<표3> 인민대학국학원의 주요 활동

공자관련행사	2001년 9월 공자상 세움, 2002년 공자연구원 설립, 중국전통문화연구중심 설립
출판	『국학경전解讀』 교재 출판, 학술지 『중화국학』 출간
학교동아리	人大文淵社의 사례射禮활동/ 전통고대성인식
포럼/강연	國學論壇

출처: 저자작성

중국인민대학 국학원은 전통문화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 국내 대학 최초로 거대한 공자상을 세우고, 2002년 11월에는 공자연구원을 설립하는 한편 중국전통문화연구중심을 설립하여 청나라 역사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국학경전解讀』 시리즈 교재를 출판하고 『중화국학』(공식 간행물)도 출간하였다. 특히 국학포럼은 국내외 국학연구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고 명망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하여 담당하게 하는 한편, 국학원의 본과 교육체계에 편입하였다. 매 회 강의는 보통 3시간 정도이다. 이는 국학원의 사회적 지명도를 높이는 한편 대중의 국학지식보급에 기여하였다. 2006년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실시하였다.¹³⁾

날짜	강사	직위	제목
2005.12	庞 朴	国务院专家委员会, 国学特聘教授	谈“无”说“玄”
2006.3	张其成	国务院专家委员会委员	清华大学国学院与国学大师
2006.4	范 曾	国务院专家委员会委员	老庄心解
2006.5	方立天	教授	国学之魂：中华人民精神
2006.6	余敦康	国务院专家委员会委员	周易的智慧
2006.9	黄一农	台湾学者	明末清初的第一代天主教徒

국학포럼을 개설한 취지는 국학문화를 선양하여 국학이 단순히 캠퍼스를 넘어 사회에 영향을 미쳐 민족정신의 함양하고 국학연구의 학술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다. 이처럼 인민대학 국학원은 학부, 석사를 위주로 하여 국학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형 국학기관의 특징을 잘 살려나가고 있다.

2-3. 수도사범대학 국학전파중심

2007년 10월 10일 수도사범대학 국학전파부문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주로 국학지식의 전파와 보급을 위주로 한다. 베이징대학 국학원은 주로 학술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인민대학 국학원은 인재교육양성에 중점을 둔다면, 수도사범대학 국학전파중심은 현대 인터넷기술을 활용해서 중국 국학 자료와 지식을 보급·전파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표3> 수도사범대학 국학전파중심의 주요 성과

내용	명칭	특징
국학사이트	“國學網”	고적전자문헌DB검색사이트
국학자료DB	“國學寶典”	중화고적원문자료 검색시스템. 베이징국학시대문화전파회사, 칭화대학의 인터넷기술연구팀과 협력
국학전자도서	“國學備覽”	고대경전 전자도서

출처: 저자 작성

수도사범대학 국학전파부문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베이징국학시대문화전파회사와 합작하여 “國學網”(www.guoxue.com)을 세웠다. “國學寶典”이라는 대형 고적전자문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국학備覽”을 편집·출판했다. 그리고 전자문헌연구소를 설립하여 베이징 교육기관에서 “국학교육기지” 대형연구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주로 전자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국학지식을 연구하는 사이트, 자료, DB를 제공하는 국학지식전파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국학망”은 중국에서 최대이며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지닌 중국 최고의 전통문헌자료검색 사이트로 중국 고대전적의 원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국학資訊·국학논단·신서추천·현대저작·국학 갤러리·국학입문·투고게재·국학인물·국학전자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국학연구의 성과와 국학연구를 대중화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국학보전”은 주요 중문도서관, 중국문화연구부문, 전문연구자와 문사애호자들을 위한 중화고적원문자료 검색시스템이다. 이는 베이징국학시대문화전파회사에서 조직하여 국내의 문사전문가들이 6년을 들여 자료 수집하고 교감한 후, 칭화대학의 인터넷기술연구팀의 도움으로 완성한 것이다. 내용은 선진부터 청나라 말까지의 2000여년의 역대 전적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인터넷판본의 “국학보전”은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 독일 국립도서관 등 해외 저명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학비람(備覽)”은 81부의 고대 경전의 전자도서이다. 가격은 약20위안정도로 이러한 상품개발은 국학지식 보급에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¹⁴⁾

2006.10	张立文	教授	国学略说:儒·道·释三句真言
2006.11	叶嘉莹	加拿大皇家学会院士, 中国人民大学国学院顾问	小词中的儒家思想

13)

14) 이외에도 대학에서 국학관련 과목을 설치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 베이징北京대학, 칭화대학, 인민대학, 베이징北京사범대학을 예로서 인문학과류의 과정에 국학에 연관된 과목으로 중국철학역사, 중국전통문화, 중국근대문화사상에 관한 논평, 중국문학역사, 당송唐宋팔대가산문, 청나라문서역사자료, 청나라공중역사 등이 있다. 홍콩에는 홍콩도시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이공대학이 유명하다. 홍콩도시대학에서는 중국문화과정을 공통 필수과목으로 인문소질의 기초과정으로 정했다. 홍콩이공대학에서

이러한 대학기관에서의 국학교육 외에도 2000년대 들어 아동들에게 경전을 읽게 하는 독경열(讀經熱)도 일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사서오경’을 숙독·암송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정하였다. 현재 베이징의 약 25여개 초·중등학교에서는 ‘독경’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광저우의 오일(五一)초등학교 등은 일찍이 1998년부터 ‘독경’ 활동을 실시해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여 명의 아동들이 ‘독경’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한다. 실제로도 2006년 베이징시 인민대회에서 ‘경전송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 국가교육부가 2000년에 제정한 초·중등학교 어문교과서에는 『<논어>』 『맹자』 『장자』 『순자』 『시경』 등 140여 편이 수록되어있으며, 앞으로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공공교육기관 외에도 독경대회, 전국독경교육, 독경교류망, 독경교육교류네트워크, 독경교재네트워크, 독경교육전파중심 등 다양한 조직과 기구를 통해 전통 교육을 확산·보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몇 년 전부터는 타이완과 연결하여 이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2년 중화문화추진회, 태평양기금회, 베이징대학이 공동으로 ‘2012 양안 인문대회’ 활동을 벌이면서 중화문화의 전승과 확산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를 뒷받침하듯, 타이베이에 있는 전국 독경교육기금회가 후원하는 화산(華山)서원은 베이징, 우한(武漢), 홍콩, 샤먼(廈門), 주하이(珠海) 등의 지역별 전통교육조직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펼쳐나가고 있다.

3. 국학인재의 사회적 활용

국학원의 중요한 임무는 국학 방면의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다. 2008년 3월 중국청년보 사회리서치센터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49.54%의 학생이 국학에 대하여 ‘매우 흥미 있음’ 이라고 답하였다. 국학을 접하는 방법으로는 57.73%가 “고전을 읽는다”는 방식으로 접한다고 했다.¹⁵⁾ 그리고 상하이교통대학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민족전통문화지식에 얻는 경로를 묻는 질문에 23.45%의 학생이 대학이라고 답했으며, 강의 교육은 10.94%이며 학교의 문화 활동은 12.51%를 차지하였다.¹⁶⁾ 이로 볼 때 국학 인문지식은 주로 대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학에서의 국학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중국인민대학의 국학원에서는 주로 본과·석사과정의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면, 베이징대학과 샤먼(廈門)대학국학원 등은 보통 석·박사 과정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들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국학기관에서는 향후 국학원의 인재들은 전 세계에 중화전통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세계 각국에 설립된 공자학원으로 향후 수용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2014년 9월말 전 세계에 설립된 공자학원은 약 세계 119개국 471개라고 한다(미국97, 러시아22, 독일17, 캐나다31, 한국23, 케냐3, 호주48개)¹⁷⁾ 이 공자학원들은 상당량의 국학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국학 교육의 부흥에도 큰 작용을 하였다. 현재 이러한 공자학원의 주요 교학내용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며 과목을 맡고 있는 교사 역시 대부분 대외한어전공자들이다. 이후로 국학원이 국제화된 국학 전문 인재를

는 공통교육으로 국학교육과정에 “중국음악감상” “중국4대고전소설감상” “중국근현대역사” “중국문학서론” “근현대중국여성역사와 중국문화속의 불교” 등이 있다. 비록 일부 학교에서 국학관련 수업을 개설했지만 대부분이 통식(通識)교육과정 형식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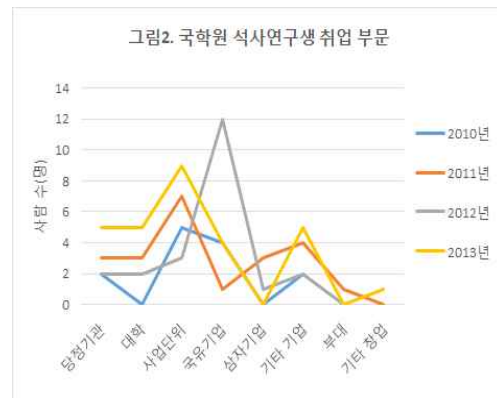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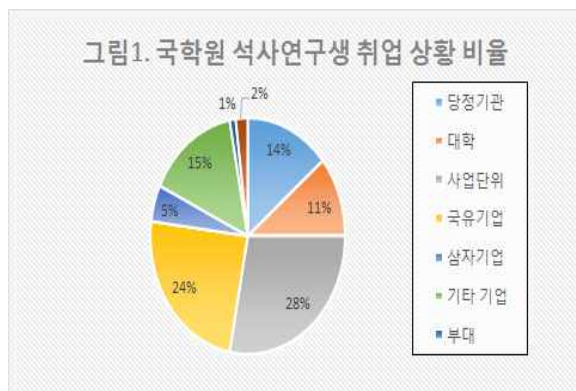
15) 青傳媒 <http://cul.news.qingnet.cn/guoxue.200804/1357315>, 2008-3-11

16) 梁敬芝·龔術婷, 「國學人才就業現狀與就業水平提升淺析: 以中國人民大學國學院碩士研究生就業為例」, 『經營管理者』, 2013, 12월.

17) 최은진,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담론>의 문화적 네트워크: 소프트 파워의 확산과 역류>,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5집, 2015.

양성하여 세계 각지에 있는 공자학원으로 배치하여 국학의 정화(精華)를 선양하여 공자학원의 운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인민대학 국학원이 2005년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관 국학교육연구기관이 약20여 곳이 설립되었다. 많은 국학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과연 국학인재들의 사회적 활용도는 어떠한가? 2013년 전국적으로 취업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학원의 낙관적인 취업률이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베이징일보』를 비롯하여 『광저우일보』, 『연조(燕趙)도시보』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국학원의 취업상황에 대해 보도하였다. 梁敬芝·龔術婷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3년 중국인민대학 국학원 석사졸업생 125명 중 취업자수 87명(창업 포함), 진학(연구)자 38명 가운데, 당정기관 취업자 12명, 고등교육기관 10명, 기타 기관단체 24명, 국영기업 21명, 3자기업(독자, 합작, 합자) 4명, 기타기업 13명, 군부대 1명, 자유직업자, 창업자 및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취업을 집행 기준에 따라 통계한 결과 국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은 100%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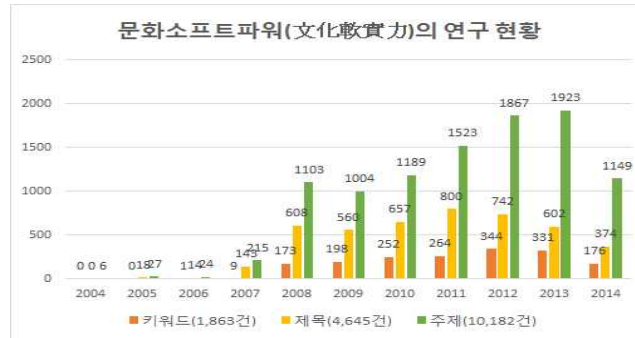
국학인재들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교육 분야에서 유명 학교들이 처음으로 국학원 졸업생을 흡수했다한다. 유명 학교인 인대부중(人大附中)과 베이징의 유명 학교 육영학교(育英學校)에서는 국학 석사졸업생을 교사로 받아들였다한다. 2013년에는 언론매체 분야에서도 10명의 석사 연구생들이 『광명일보』와 남방신문집단(南方報業集團), 허난방송국, 騰訊 등 주류 미디어에 들어갔다 한다.

4. 국학과 문화대국의 길

현재 군사력과 경제력을 포함한 하드파워를 제외하고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의도는 서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불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도 하다.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이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하드파워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점은 소프트파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중국이

18) 梁敬芝·龔術婷, 앞의 논문. 졸업생들 가운데 서부와 군부대, 기층부서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학원 석사연구생 중 베이징의 농촌 간부가 된 사람이 2명, 충칭으로 가서 중학교 국어교사가 된 학생이 1명이며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잇따라 안후이성에서 농촌간부가 되고 충칭의 현당교에서 교직을 하는 학생도 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리 놀라운 수치는 매년 졸업 학생수가 35-50명에 달하는 학원 측에 있어 적지 않은 비율이다.

설정된 것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¹⁹⁾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공자학원을 세우고 국내에서는 국학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문화산업은 단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산물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핵심요소로 본 것이다. 아래는 CNKI(中國知網)에서 문화소프트파워(文化軟實力)을 키워드·제목·주제로 검색한 결과이다.



출처: CNKI(中國知網)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4년 10월 05일

특히 2008년 올림픽을 전후로부터 지속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대 중국은 ‘유교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문화중국’을 꿈꾸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전통문화의 복원, 신유가의 중시 등 민족주의 측면에서 유교의 부활을 강조해왔다. 특히 2008년 올림픽 개최 이후 내부적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이익과 서구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문화소프트파워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물론 유학은 중국 문화의 중심이었고 또 현재 중국 문화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 중국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려는 점은 관념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과거’ 유학의 정신 문명이 ‘현재’ 중국의 대내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적실한 대안인지, 나아가 유가의 사유 방식이 현대 중국 정치와 인민의 일상, 사회제도 등으로 귀착할 수 있는지의 적실성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는 한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으로 인해 존속되는 것은 아니며, 정체성은 시대적 요구와 문화 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근대는 유학, 공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비판과 계승이라는 연속과 단절의 반복을 거듭해왔다. 현재 유학의 부흥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대중의 자발적 흐름이 아니라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안에 놓인 장치라는 것이다. 정치가 문화를 좌우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가 정치와 자발적으로 연관될 때 ‘문화중국’의 길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5.4이후 유가사상은 국가이데올로기형태로 존재하기가 힘들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국학열’은 당시 정치·경제·문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학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80년대 초 이래로 중국 사상문화 영역의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보충하려했고,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일어난 인문정신위기, 문화위기 및 자본주의의 배금주의적 숭배 등을 비판하기 위해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사상을 필요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고유의 도덕적 논리를 세워야만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내부 문제 외에도 ‘국학열’의 더 큰 문화적 배경은 서방국가의 자본주의 문화의 위기로 인해서이다. 부패, 범죄,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자본주의는 더 이상 문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과 문화패턴을 돌파해야했다. 이러한 현대화 과정속의 많은 대내외적인 폐단은 서방문화와 자본주의 폐단과

19) 신진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전략: Confucius Institute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2015년, 1월 27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발표 논문.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공·맹의 도리’는 역대의 일종의 정치철학을 도덕질서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현대화 과정과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공자·국학 등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학이 정부이데올로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원칙 안에서는 전통문화사상이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시장경제체제의 실행은 시민사회의 형성을 추동하며 개인이익, 개인욕망의 최대 실현하려 한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전통유가문화속의 여러 관념과 대치된다. 중국 전통 가치관 속에는 중국의 현대화 진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적지 않다. 전통가치관은 정신 지향을 중시하고 물질적 욕구를 경시하였다. 유가에서 통치자들은 자신의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중의경리’·‘과욕(寡慾)’·‘안빈낙도’·‘지족’ 등의 관념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치관은 중국인들이 물질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중국 사회가 현대화로 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입장에 서든 국학이 현대 중국 정부이데올로기형태가 되기란 어려울 것이다. 장다이넨(張岱年)은 “유가는 근본적으로 당대문제의 해결방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5.4운동이후 유가를 주도사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가 돌아오지 않는다.”²⁰⁾라고 말했으며, 탕이제(湯一介) 역시 국학이 정부이데올로기형태가 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현재 유가문화는 정부의 이데올로기형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이 현재 현대화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철학-도덕체제를 세워 행위규범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현재의 민주주의, 보수주의 등 각종 이데올로기형태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새로운 고대와 현대를 융합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²¹⁾라고 하였다.

결코 국학을 경시하거나 전통을 폄하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열(燀)’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문화적 현상으로 자국의 전통 학문에 대한 국학의 열기, 고전경전 읽기의 붐을 넘어 신화화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정치면에서 볼 때, 내부적으로는 충효를 강조하는 유가사상이 집권당의 입장에서 적절한 것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로도 적격일 것이다. 또 과거 통치의 국교로 삼았던 한대 유가가 특히 그러하며, 도덕을 중심으로 한 송대 유학, 근대 이후 구국적, 타도적, 복고적인 성격을 띤 유학은 모두 이데올로기였다. 지금 중국에서 일고 있는 국학, 복고 운동들 역시 현 중국 집권 세력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과거 ‘복사’판의 재현일 뿐이다. 옛것에 의탁해 제도를 개혁한다는 ‘탁고개제(托古改制)’에 빠져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歐陽小紅, 『國學院的發展及辦學特色』, 廈門大學(碩), 2008

趙淑梅, 『振興大學國學教育的理論探索』, 東北師範大學(碩), 2007

趙淑梅, 「大學國學教育的現實解讀」, 『現代教育科學』, 2008, 제6기.

劉玲玲·張倩, 「同歸與殊途:20世紀90年代以來“國學”內函研究述評」, 『燕山大學學報』, 2008, 제2기.

梁敬芝·龔術婷, 「國學人才就業現狀與就業水平提升淺析:以中國人民大學國學院碩士研究生就業

20) 張岱年, 「如何研究國學」, 『文史哲』, 1994, 제3기.

21) 湯一介, 「中國古今之爭與中國文化的現代發展」, 『江淮論壇』, 1994, 제6기.

- 爲例」,『經營管理者』, 2013, 12월.
- 黃力之, 「世紀末的“國學熱”之意識形態解讀」,『理論與創作』, 2001, 제5기.
- 최은진,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담론」의 문화적 네트워크: 소프트 파워의 확산과 역류」, 『중국근현대사연구』, 2015, 제65집.
- 신진호,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전략: Confucius Institute 공자학원을 중심으로」, 2015년, 1월 27일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발표 논문.
- 박영순, 『1920년대 국학연구와 학술관념의 변화-북경대학연구소 國學門을 중심으로』, 『중국어 문학논집』, 2010, 63호